

공공도서관은 우리들이 살려야 한다

이 용 남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도서관의 가치에 대한 많은 예찬론이 있고, 이를 필수적인 사회기관으로 제도화시킨 여러 선각자들이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지만, 19세기 후반의 카네기(A. Carnegie)야말로 미국 공공도서관 발전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상적 교육을 받지 못한 가난했던 소년시절에 동리의 개인 도서관을 이용하며 자기학습 방법으로 성장한 대사업가 카네기는 미국에만 1,600여개의 공공도서관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 운영토록 하였다. 전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을 택한 이유에 대한 그의 답변은 명료했다.

“공공도서관이야말로 자기향상을 위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의 기본부터 뒤흔드는 거센 도전으로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는 요즘, 갑자기 카네기가 생각나는 것은 위의 사례가 우리에게 두가지 점에서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공공도서관이 대중에게 자기교육과 자율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생각한 그의 인식이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무조건 나누어주는 식의 시혜적 자선은 멀리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며 자기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문화 시설인 공공도서관에 투자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관 등의 간판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소위 ‘단순 영조물’인 공공도서관을 평생교육 기능의 시설로 개편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분인데, 도무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지식정보자원을 수집, 관리, 이용시킴으로써 개인의 학습,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공공도서관의 기본기능은 바로 ‘평생교육과 문화’의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곳곳에 평생교육이 공공도서관의 주요 목적으로 명시되고, 각 도서관에서 독서회 활동, 각종 강좌, 전시 등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유네스코의 성인교육추진국제회의에 처음으로 평생교육의 이념을 제시한 뵐랭그랑은 “현대사회에서의 학습은 모든 것을 이용하는 배움이요, 모든 곳에서의 배움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망라한 배움”이라 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의 성격을 제시하였다. 즉, 참다운 평생교육은 학습자가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방법으로, 카네기의 말대로 “자기의 향상을 스스로 돕는” 과정이며, 이의 기반시설이 곧 공공도서관이 아니겠는가?

카네기의 공공도서관 인식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겼다는 점이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정의 예산을 부담하여 해당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조건하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후일 일부 학자가 그의 사상을 사회다윈리즘(Social Darwinism)적이라고 분석하는 사례로 인용되기까지 하였던 이러한 방침은, 오늘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운영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한다. 민간 독지가가 세운 공공도서관 이더라도, 민간의 기여는 어디까지나 불모지에 '불씨'를 지피는 일이며, 그후의 관리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지방비로서 그 '불길'을 영속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모든 분야에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민간위탁으로 예산절약이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공도서관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주민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관이면서도 전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순수 서비스기관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위탁된 도서관의 사업자들은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우선 인건비를 줄이고자 질 낮은 비정규직을 늘리고, 가시적 사업 성과만을 높이고자 도서관업무 중 표피적이고 계량화가 가능한 업무에만 주력함으로써, 사업성과의 보상가치가 늦게 나타나는 본질적인 중요 업무들이 급속히 쇠퇴할 것은 뻔한 일 이 아니겠는가?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관'등으로 조직개편 하려는 숨겨진 의도는 도서관장의 사서직 보 임을 회피하려는 책략이며,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 의도는 도서관운영 예산을 무조건 줄이겠다는 경제논리 일변도의 근시안적 발상임은 이미 수없이 지적된 내용이다. 오늘 내일 끝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또한 지역 곳곳에서 지루하게 전개 될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우리 도서관계의 장단기 대응전략과 효율적인 추진 력만이 믿을 수 있는 힘이다. 현장이나 학계의 모든 전문직들의 적극적인 참여정신과 조직 화된 실천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 현장 중심으로 많은 전문직들이 물심양면의 성원을 보내어 도서관계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힘을 더 모아야 한 다. 공공도서관 사서가 아니더라도, 현장 사서가 아닌 학자이더라도, 우리 공동의 문제에 대 한 실천적 참여정신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기상황에서의 전문직 의식은 소속된 도 서관의 종류나 맡은 바 소임이 다름을 초월하여, 통합된 '전체 도서관인' 의식으로 승화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